

회원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환경부는 전국 시·군 단위 164개 지자체별로 수돗물 생산과정과 수질검사결과 등이 수록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품질보고서에는 수돗물 맛있게 마시는 방법, 수질기준, 수돗물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 욕실에 분홍색 물때가 생기는 이유 등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들도 게재되어 있으며 수돗물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한 차례 이상 3~5장 짜리 보고서를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준공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남 서남부지역 9개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가 6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5월 29일 준공됐다. 장흥댐이 수원인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는 하루 20만톤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규모로서 주요시설로는 정수장 1곳, 가압장 6곳, 상수도관로 340km가 건설되었다. 이번 사업 완공으로 목포시, 장흥·강진·영암·해남·완도·진도·무안·신안군 지역 101만명이 급수 혜택을 받게 돼 보급률이 기존 52.2%에서 86.3%로 무려 34.1%나 높아졌다.

환경관리공단

'하수 및 오수·분뇨 분야 연찬회' 개최

환경관리공단은 '2007년 하수 및 오수·분뇨 분야 연찬회'를 환경부 및 단양군 후원으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광범위하게 변화되는 하수도정책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사례발표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며, 참석자 상호간 정보교류 및 현장견학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공무원과 하수 및 오수·분뇨 분야 관련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 600여 명이 연찬회에 참석했으며, 관련 업체의 홍보부스가 마련되기도 했다.

환경보전협회

'제29회 국제환경기술전' 개최



국가간 환경기술 교류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판로 확장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환경보전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환경기술전이 올해로 29회째를 맞았다. 6월 11일~14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린 국제환경기술전은 총 24개국에서 255업체(국내 159, 국외 96)가 참가해 환경부문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로 기록됐으며, 2,000여 가지의 다양한 환경 신기술 및 신제품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와 유사한 경제성장 패턴을 가지고 있는 후발 개도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기술 선진국인 호주, 일본 등 12개국 91명의 해외 바이어 및 공무원들이 초청되기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강 환경지킴이 현판식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환경지킴이 발족 취지 및 역할을 널리 알리고 한강 사랑 실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5월 24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 하수처리장에서 '한강 환경지킴이 현판식'을 가졌다. 행사는 팔당권역 심우정, 남한강권역 신부숙, 북한강권역 엄경옥 등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시작해 지킴이 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한강 환경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강지킴이들은 팔당호 14명, 북한강 10명, 남한강 16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훼손행위 감시·계도 및 수질정화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천 수질 크게 좋아져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원주천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mg/l 떨어진 7.2mg/l로 조사돼 관리기준인 4등급(BOD 8.0mg/l 이하)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량이 적은 원주천은 그동안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4월의 강수량이 지난해보다 적었음에도 오염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원주시가 하수관거공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이 좋아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수도 민원처리 결과, 문자로 바로바로!



서울특별시 상수
도사업본부는 5월
16일부터 '통합메
세지 전송시스템

(UMS-Unified Message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단수안내, 동파예방안내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지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게 된다.

대량 메시지 발송이 필요한 공지의 경우, KT와 협약을 통해 대상 주소지의 전화번호로 자동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전화나 인터넷으로 수도계량기 교체, 자동납부 신청 등 16종의 주요 수도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민원접수·진행·처리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기관 지정 취득



부산광역시 상수
도사업본부 수질
연구소는 5월 2
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인종 분야는 먹는물 분야 중 탁도 및 잔류염소 연속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부문으로, 지자체 중 서울시 상수도 연구소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받았다. 이번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행기관'은 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평가단에 의한 검사기술·장비·인력 등의 실사를 통해 지정받았으며, 앞으로 보다 정확한 수질관리로 한 단계 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졌다.

인천광역시

수돗물 수질민원 사례집 및 홍보책자 발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는 「수돗물 수질민원 사례집」과 「수돗물 이용 도우미」 책자를 발간했다. 수질민원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이 상세히 수록된 「수돗물 수질민원 사례집」은 민원담당 부서에서 향후 민원상담 및 처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돗물 이용 도우미」는 고객이 자주

방문하는 일선 민원실에 비치하고 Water Tour 등 수돗물 홍보행사 시에는 고객에게 직접 배포해 수돗물 불신해소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발간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www.waterworksh.incheon.kr)와 행정포털시스템(IN2IN)에도 게시된다.

광주광역시

초등학교생 대상 수돗물 체험학습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5월 17일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수돗물 체험학습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신창초등학교 5학년 160명을 대상으로 덕남정수사업소와 수질연구소에서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은 '물나라 여행' 정수처리 모형전시실을 관람하고, 정수장 시설을 둘러보면서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학습했다. 또 물속에 사는 플랑크톤 관찰, 황토물의 응집정화 등 실험에 직접 참가하고 수돗물의 소독유지 상태를 체험하는 음수대 시음회도 가졌다.

대전광역시

수돗물 미급수 지역 해소 추진



대전광역시 상수
도사업본부에서는
장척동 지역
등 시 외곽지역
인 수돗물 미급

수지역에 배수관부설 및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월중 미급수지역인 동구 장척동 지역에 4억원을 들여 길이 1,500m의 배수관 부설공사를 발주해 현재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주민 34세대 93명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장척동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는 배수관 확장뿐 아니라 유량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누수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유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

수돗물 브랜드명 '달구벌 맑은물' 선정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구 수돗물의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돗물 브랜드명을



공모하고 '달구
벌 맑은물'을 최
우수작으로 선정
했다. 향후 브랜
드명에 걸맞은

로고를 제작하여 페트병 형태 수돗물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영상광고 등 각종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6월 5일에는 '달구벌 맑은물'의 수질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NGO(환경, 소비자보호, 여성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체험투어를 실시했다. 체험단은 운문댐 및 고산정수장 일원에서 견학 및 수질검사에 직접 참가했다.

강원도

소양강댐 흙탕물 해결 본격화



정부가 북한강
흙탕물 사태에
따른 세부 대책
마련을 위해 부
처별 합동 태스

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강원도를 비롯해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4월 2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소양강댐 토사유출저감 추진 기획단'을 구성, 오는 8~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기획단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제도개선팀과 소양강댐 상류 고령지반의 토사 유출원을 직접 조사하는 현장조사팀으로 나누며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포함됐다.

경상북도

자매결연마을 간이상수도 물탱크 청소

경상북도 수질보전과 직원들이 울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자매결연마을인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성동마을을 찾아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청소하고 하수도를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성동마을은 지난 1987년에 25톤 규모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됐지만 마을주민 80여 명이 대부분 고령자인 관계로 물탱크 청소를 제때에 하지 못했다. 경북도청 수질보전과와 성동마을은 지난 2005년 7월 도에서 진행한 '1실과 1자매마을 맺기'가 인연이 돼 지금까지 긴밀

회원소식

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우수 자매마을과 지원부서로 평가받아 2천만원의 상금을 마을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암해수산업화 프로젝트’ 우수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용암해수산업화 프로젝트가 지역산업정책

대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5월 28일 산업자원부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과 서울과학종합대학이 공동주최한 ‘제4회 지역산업정책대상’에서 부존자원부문 정책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제주용암해수산업화 프로젝트는 해양심층수보다 수질이 우수하고 취수비용도 1/10 이하로 경제성이 뛰어난 제주용암해수를 고급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위해 오는 2008년까지 국비 21억원, 도비 12억원, 민자 9억원 등 총 42억원을 투입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신개념 벽제친환경사업소 가동

경기도 고양시 벽제 권역의 하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벽제친환경사업소가 4월 25일 준공과 함께 가동에 들어가 한강 수질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이곳에는 사업소 규모와 비슷한 가족체육공원을 조성,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환경기초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벽제친환경사업소는 585억여 원이 투입돼 곡릉천변 4만 9,000여 m²에 하루 3만톤 처리 용량으로 건설돼 생물학적 질소·인을 제거하는 고도하수처리공법이 적용되고 인공여울, 태양광 가로등, 야외공연장이 들어서는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됐다.

평택시

수돗물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평택시는 ‘물사랑! 다음세대와의 약속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최고품질의 수돗물 종합계획’을 수립, 향후 5년간 8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



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노후관 개량공사,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도입, 블록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접근성이 좋은 배수지 상부를 활용해 시민공원을 건설하기로 했다. 평택시의 ‘슈퍼워터’는 진위천의 맑은 물을 송탄정수장에서 엄격한 수질관리를 거쳐 만드는 수돗물로 공공행사과 민원봉사실, 보건소 등 시민 다중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가평군

신천리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



경기도 가평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설악면 신천리 하수

종말처리장이 3년여 만에 완공됐다. 지난 2004년 7월에 착공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일 처리용량 1,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차집관로 8.8km, 중계펌프장 1개소로 건설됐다. 이진용 군수는 “설악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처리해 북한강의 수질 개선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속초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 속초시는 청초호 수질개선 및 인근해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월 24일 밝혔다. 총 50억원을 투자하게 될 이번 사업은 금호동 협성아파트 일원 등 총 4곳에서 진행되며, 공사발주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생활하수 악취와 침수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조양동 펌프장에 배수펌프 4대를 추가, 총 7대를 설치함으로써 시간당 최대 1,380톤을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착공해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정선군

동강살리기운동본부 출범



도암댐 해체를 통한 범국민동강살리기운동본부가 지난 6월 출범했다. 운동본부에는

정선군농민회 정선군공무원노조 정선문화연대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관내 20여 개 단체가 참여를 선언했다. 현재 동강은 도암댐 방류 및 무분별한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강살리기운동본부는 출범과 함께 동강생태계보존을 위한 세미나, 도암댐 효용가치에 대한 세미나, 동강 수질검사, 하천 감시, 동강살리기에 관한 문화예술행사, 대선후보 도암댐 해체 공약채택 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시

농촌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충청북도 청주시 외곽지역 시민들도 수질검사 규정을 준수한 지하수를 마실 수 있게

됐다. 현행 지하수법에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3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검사 기피현상이 심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공인 수질검사 능력을 보유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청주시 수돗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에 ‘농촌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파악된 수혜대상은 1,900여 가구이며 시민들의 부담 경감 액수는 약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제천시

신(新)하수슬러지 처리기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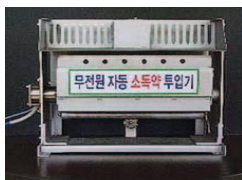


수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하수슬러지 처리기가 충청북도 제천시 공무

원들에 의해 개발됐다. 이 처리기를 설치하면 슬러지 양도 줄고 수질도 기존 처리기보다 훨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하수슬러지 처리기는 충북 제천시 농촌마을 19군데에 설치돼 하천 정화에 이바지하고 있고, 특히 이 처리기가 설치된 금성마을은 3년째 전국 최우수 환경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보은군

맑은 물 안정적 공급 '신기원'



충청북도 보은군은 5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 전국 상수도 종사자 워크숍'에서 무전원 자동소독약 투입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 장치는 관리가 편리하고 상수원의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특징. 군은 이 장치가 간이상수도 소독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조달청조달물품으로 등록하는 등 제품 확대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

지하수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난 4월 건설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지하수 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천안시는 지하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예산 확보, 지하수 보전 노력 등 5개 분야에서 고르게 최고점수를 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2003년 16억 5,000만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에 나섰으며,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 관리체계를 갖추었다.

순천시

먹는물 검사 수입 '톡톡'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라남도 순천시가 운영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

검사로 수입이 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5월 29일까지 벌어들인 수질검사 수수료는 모두 2억 2,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가 늘어난 것으로 월 평균 4,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의뢰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50건이 늘어난 4,88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산시

2011년까지 시내 전역 블록화 관리



상수도 노후화가 심한 경상남도 마산 지역의 유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마산시에 따

르면 상수도 유수율이 2011년까지 80% 이상으로 유지되고, 수돗물 생산 경비도 19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종합관리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덕분이다. 시는 11개소의 상수도 주요 시설물에 대해 무인·자동화시스템 구축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블록화사업에 착수했다. 11억여 원이 소요된 블록화사업은 시내 급수지역 전역을 모두 41개 지역으로 나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베트남지사 설립



도화종합기술공사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베트남지사를 설립했다. 지난 1월 베트남 국토개발원 (NIURP) 및 하노이시 건설업체인 UAC와 도시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 베트남 건설시장에 토목엔지니어링 전 분야에 걸쳐 현지업체와의 공동진출 기회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베트남 시장을 거점으로 향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로 수주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삼진정밀

JMC 인수, 종합 밸브제조회사 도약



16년간 상하수도 밸브제조 전문회사로 명성을 쌓아온 삼진정밀은 지난 3월 볼밸브

전문업체인 JMC를 인수하고 자회사인 (주)삼진 JMC를 설립했다. 지난해부터 동남아 및 중동지역 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삼진정밀은 내년까지 추가로 북미시장에서만 1,000만달러 상당의 수출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동남아에도 현지 공장을 설립해 밸브업계의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다는 각오다.

(주)진행아이에스유코

새로운 CI로 친환경 기업 이미지 구축



수처리 전문회사 진행아이에스유코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5월부터 새로운 CI를 도입했다. 지난 1월 아이에스유코에서 상호를 변경한 진행아이에스유코는 선진기업의 이미지와 한국을 뿌리로 삼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이념을 함축한 새로운 CI를 선보임으로써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 상하수도인이라면 누구나 보는 협회지회 회원 여러분의 최근 소식을 담아보세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세요? 아래의 협회지 담당자에게 보도자료(사진 자료 포함)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소식을 소중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홍보팀 신재복 팀장 (02-3156-7731)
E-mail : jtshin@kwwa.or.kr